

새 봄엔 희망찬 일만 가득하길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봄이 왔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엔 봄이 오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깝다. 지난 2월1일 새벽에 엄마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왔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다 문 앞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는 순간 '울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급하게 119를 부르고 동생에게 연락하면서 너무도 아파하는 엄마에게 오혀려 '그러니까 조심해야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재근하는 못난 나를 보게 되었다. 의료대란이 실감나는 숨 막히는 2시간이 흐르고 서야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였다. 드시고 있는 약 때문에 수술이 1주일 뒤로 미뤄지고 간병할 사람을 구하면서 고관절 골절로 인한 주변의 불행한 사연들로 인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었다. 강한 재활 의지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었다. 그로부터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혼돈의 시간이었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혼란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로 인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 정신적 지주였던 엄마의 흔들림 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일찍 부모를 여읜 아이들이 생각났다. 그 어떤 순간에도 힘이 되어줄 부모가 곁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과연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조카를 만나서 얘기 하였다. 네 맘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해본다고..

삶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부모로서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굵은 등을 보이고 고목속에 잠들어 있는 노모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 아낸 엄마. 이제는 얼마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고 싶다.

봄꽃 만발한 동산을 보면서, 새롭게 돌아온 새싹들을 보면서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 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제2의 인생을 구상해본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든다.

4월5일 검정고시를 앞두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해 준 고마운 손길이 있다. 박신면 에텐병원 원장님과 CBMC빛으로지회 이을용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힘들게 준비

한 검정고시날 따뜻한 밥을 준비해주었다. 우리학교박센터에서 1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초,중,고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을 보는데 힘찬 응원과 함께 귀한 점심을 기부해주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 봄이 더욱 행복하다. 올해 검정고시는 응시자가 늘어서 3 곳에서 시행된다. 모두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해본다.

함께 수고해준 많은 사람들에게도 새 봄의 기운으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길 기도한다.

봄! 봄날의 향기에 설레이던 그 봄날이 그림자. 20대의 찬란한 대학생활의 교정도 그림고 30대에 그렸던 힘찬 도약의 봄날도 그림자. 제법 원숙미를 생각하던 40대의 봄날은 어떠했는가?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이 봄날에 새로운 희망을 생각해본다. 우리 모두에게 봄이 왔으면 좋겠다.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야 아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추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더 푸르게 자라듯이 우리도 지나온 어려움을 딛고 더 단단해 질 수 있으리라. 움추렸던 마음을 펴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필요한 시간이다.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길 희망해본다. 희망 가득한 봄날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기도하면서 다음 주 검정고시를 치를 아이들을 위해 파이팅을 외쳐본다.

社說

지역필수의사, 미봉책으로 안착 어려워

과감한 투자, 의사 수 등 늘려야

전남도가 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 필수수의사가 전남의 의료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핵심은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다. 실력 있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보상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차원의 정주여건도 지원된다.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특히 전남은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 등 4곳이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교육부 RISE사업과 연계한 주거, 연수·연구

비, 생활 인프라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업만으로 무너진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살아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고난도 시술이나 경험 등이 중요한 필수 의료의 경우,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고 전남으로 옮겨 올지는 미지수다. 값비싼 의료장비 등이 부족한 지역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애써 영업한 의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어렵다. 설령 의사들이 지역에 오더라도, 5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뒤 지역에 계속 남게 할 방안도 없다. 무너진 지역 의료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지역필수의사제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27억여원에 불과하다. 지역필수의사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무너진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방 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인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사 수도 늘려야 한다. 지역수당이라는 미봉책만으로는 무너진 지역 의료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다.

신재생 사업 허가·취소 권한 이관 절실

전남 설치법안 수정 불가피

정부 주도 발전사업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허가·취소권 지방 이양을 담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법안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명칭도 '전남'에서 '전라남'으로 변경돼 법안 개정 필요할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 적정성 검토, 4~6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상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전라남특자도 특별법 제38조, 제39조와 중복돼 특자도 관련 법안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38조는 재생에너지 중 40MW(4만kW) 미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40MW 초과 사업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정부 주도를 공

식화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 중복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자연스레 '정부 권한 강화, 도지사 권한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수용성과 수요처 확보, 전력 계통 등이 얽혀 있긴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에 탄력이 불고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수요처가 전남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 전남도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만큼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전남특자도 특별법 발의 후 전라도(全羅道)가 전주의 '전(全)'과 나주의 '라(羅)'가 합쳐진 지명인데, '라'가 빠지면 "1000년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에 전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실효성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에 전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소'(CECOT·세코트)에서 교도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이주자들을 압송하고 있다. '세코트'는 세계에서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교도소로 알려져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치유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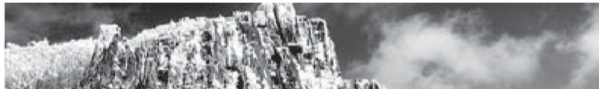
1901년 한국을 방문한 독일 지리학자 겸 기자 지그프리트 켄테가 쓴 저서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라고 묘사하면서도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가 사납게 내려다보는 모습은 암담하고 황폐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흔히 흰색과 붉은색으로 표현됐다. 나무 한그루 없는 붉은 땅에서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당시 황폐한 산림은 육안으로 보기에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터전으로 사는 국민들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발생했고, 반대로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과 강이 순식간에 마르면 서 시도 때도 없이 흉년이 찾아왔다.

'산림녹화.'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강국이다. UN은 1982년 FAO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전 세계 환경정책의 대부라 불리는 레스터 브라운은 자신의 저서 '플랜B 2.0'을 통해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라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 새마을운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산림녹화를 추진한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결단력과 현신규 박



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선각자들, 그리고 산림녹화는 곧 내 고장 살리기라는 것을 공감하고 녹화조림에 열과 성의를 다한 국민 등 민중산의 가난한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인간승리의 역사였다.

'괴물 산불.'

올해 봄, 건조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의 동부권을 중심으로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언론은 일제히 '괴물 산불'이라고 칭했다. 인명피해만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 8000여

ha(헥타르)로 추산됐다. 서울 면적(6만 523ha)의 약 80%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 발생 때마다 임도(숲길) 부족, 우왕좌왕 대피 체계, 부족한 장비와 인력, 관리가 안 돼 불쏘시개로 전락한 숲은 산불 피해를 키운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산불 역시 항상 존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기존 산불 대책의 많은 허점들이 재확인됐다. 가속화된 기후변화에 대형 산불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보다 더 놀라웠던 '산림 녹화' 기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피해가 상시화, 규모화되고 있다. 앞으로 산림은 취약한 소나무 위주에서 다양성을 높이고 경제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2의 산림녹화 계획이 절실해 보인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